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Revitalizing the ISNI-KOREA Consortium an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김 주 섭 (Juseop Kim)**
강 봉 속 (Bong-Suk Kang)***
김 선 태 (Suntae Kim)****

< 목 차 >

I. 서론	IV.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요약: ISNI는 범용적인 전거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중계 식별자로서 학술연구자에 한정된 ORCID 대비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연구직 및 교육직의 발급이 압도적으로 많아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출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ISNI 발급이 활발하지만 국내의 경우 출판계를 통한 발급이 전무하다. 본 연구는 국내 출판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ISNI 발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과 출판계 등 컨소시엄 확대 가능 기관의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ISNI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제도 정비, 거버넌스 강화,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시스템 연계 등 4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ISNI-KOREA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활성화 관련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KOREA,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식별자

ABSTRACT: ISNI is a relay identifier that can integrate universal archival data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y applied to various fields compared to ORCID, which is limited to academic researchers, but in Korea, it is overwhelmingly issued to researchers and educators, and its purpose is gradually fading. In particular, overseas, ISNI issuance is active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shing industry, but in Korea, there is no issuance through the publishing industr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and the issuance of ISNIs to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presentatives of the existing ISNI-KOREA consortium organizations and potential consortium expans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publishing industry. As a result of the interviews, four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as a way to revitalize ISNI: reorganizing its own system, strengthening governance, promotion and education, and system linkage. To address these policy implications, we proposed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centered on four policy goals and 12 key tasks.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ch operates the ISNI-KOREA consortium, develop policies related to ISNI activation.

KEYWORDS: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Identifie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3. 이 논문은 2023년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연구데이터융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kimjuseop@jbnu.ac.kr / ISNI 0000 0004 7492 1806)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연구데이터융복합연구소장
(kim.suntae@jbnu.ac.kr / ISNI 0000 0004 6492 635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2월 26일 • 최초심사: 2024년 3월 9일 • 게재확정: 2024년 3월 2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239-261,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1.202403.239>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SNI는 창작, 제작, 실연 분야 등 범용적인 전거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중계 식별자로서 연구자에 한정된 ORCID 대비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컨소시엄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등 ISNI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작자·창작물 및 저작권 권리자의 연계 등을 위하여 2016년 국제표준이름식별자(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이하 ISNI) 국제기구에 가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학술, 문학, 음악, 영화,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14개 기관과 ISNI-KOREA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ISNI-KOREA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개인 1,290,389건, 단체 103,038건이 등록되어 있다. ISNI 등록 건수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약 20여만 건이 등록되었지만, 2021년부터 연간 등록 건수가 감소를 보이며, 2023년에 들어서는 약 10여만 건으로 등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ISNI KOREA, 2023). 2019년부터는 우수등재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등재 학술지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경우 저자 정보에 ISNI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KERIS의 D-Collection에 ISNI 적용을 권장하는 등 학술연구 분야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실행되고 있으나 구축력과 거버넌스 확보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학술 연구 분야 참여가 압도적인 국내 ISNI-KOREA 현황과 대조적으로 전 세계 ISNI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3년 1분기 신규 발급된 전 세계 ISNI의 경우 음원 분야 등록이 압도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는 인디 음악 아티스트, 음반사를 위한 유통, 마케팅 및 상품화 서비스 제공사인 Wiseband, 2022년 이후에는 TIDAL, Utopia, 워너 뮤직 그룹 등이 ISNI RA에 가입하고 APPLE, Spotify 등 음악 분야의 ISNI 회원 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캐나다 출판 유통 협회 격인 BOOKNET CANADA, 영국 출판 저작권 서비스 PLS 등 출판 분야 가입 및 등록이 활발해졌으며, 출판계의 경우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이하 ONIX)를 통해 도서 납본 시점에 출판사가 ISNI를 입력하고 누락된 ISNI만을 도서관에서 생성하는 프랑스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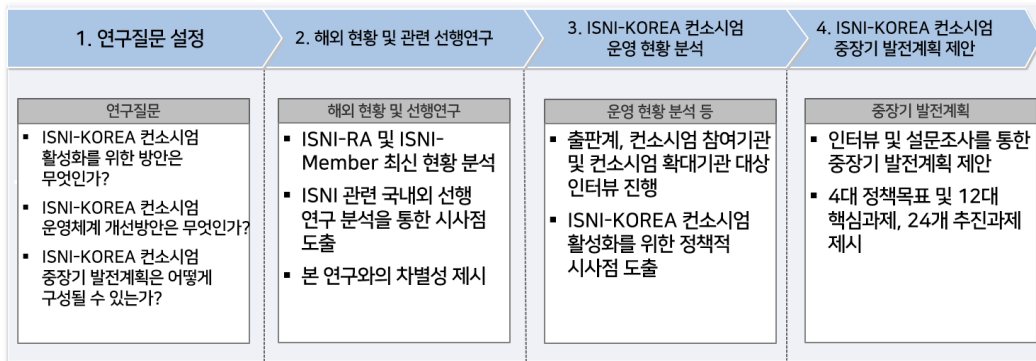
본 연구는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통한 ISNI 발급을 확대하려 설계되었다. 따라서 ISNI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 조사와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향후 ISNI 발급 확대를 위한 ISNI-KOREA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참여 확대 기관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단계별 연구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단계별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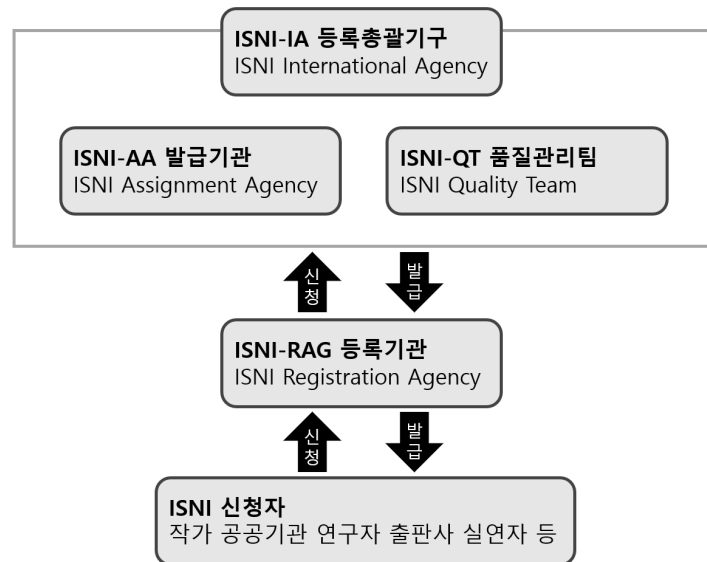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4단계의 연구전략을 적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ISNI-RA 및 ISNI-Member의 최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3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출판계 그리고 컨소시엄 확대기관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도출된 여러 시사점을 중심으로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안에는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목표, 12대 핵심과제 그리고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ISNI 국제 기구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1. ISNI 구성 및 ISNI-KOREA 현황

ISNI는 2010년 ISNI 표준을 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6개의 주요 기관이 모여 ISNI 국제기구 (ISNI-IA)를 설립한 것에서 시작한다. ISNI 창립 회원은 CENL(유럽국립도서관협의회), CISAC(국제 작가 및 작곡가 협회 연맹),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 OCLC, ProQuest, SCAPR(세계 실연권집중관리단체연합)이 있으며, ProQuest를 제외한 5개 기관은 ISNI-IA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ISNI 운영체계는 창립회원, 등록기관, 일반 회원, 데이터 기여자, 정보자원의 식별 및 기술과 관련된 조직 등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ISNI 운영체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ISNI International Agency,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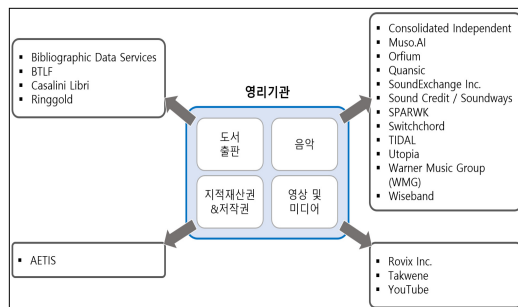
<그림 2> ISNI 운영체계

먼저, ISNI-IA(International Agency)는 ISNI 총괄 운영 및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등록총괄기구이다. 다음으로 ISNI-AA(Assignment Agency)는 ISNI 신규 발급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ISNI 이사회 회원인 OCLC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 공급업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SNI-QT(Quality Team)는 ISNI 메타데이터 품질검사 및 오류점검을 담당하며, ISNI-RA 중 하나인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이하 BL)과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의 전문 인력이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ISNI-RA(Registration Agencies)는 자체 전문 분야에서 메타 데이터를 큐레이팅하고 기여하며, 새로운 ISNI 할당 요청 제출 및 ISN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ISNI-RA로 등록되어 있다. ISNI Members는 ISNI-IA에 의해 임명되며 ISNI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이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여자는 다양한 도메인의 기관 및 리포지터리로서 ISNI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ISNI 할당 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ISNI 발급 요청하는 ISNI-RA 즉 등록기관은 전 세계에 43개가 있으며 이 중 영리기관 20개 그리고 비영리기관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3> 그리고 <그림 4>는 국제 ISNI 등록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전 세계 분포도와 영리기관의 주요 서비스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ISNI 등록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국가별 현황



<그림 4> ISNI 등록기관 중 영리기관의 주요 서비스 영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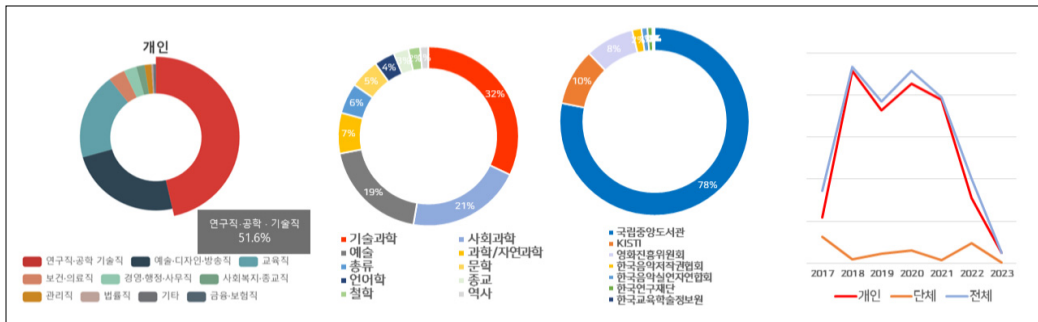
위의 <그림 3>은 ISNI 등록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국가별 현황으로, 유럽 국가의 참여 비중이 전체 23개 중 16개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는 ISNI 등록기관 중 영리기관의 주요 서비스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음악산업이 전체 20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주체인 ISNI-KOREA 컨소시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NI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부여하여 창작자의 국제적인 식별, 통합관리 및 창작물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ISNI-IA(국제기구)와 ISNI-RA(등록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학술·문화예술·저작권 등 각 분야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ISNI-KOREA 및 국가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으로 컨소시엄 확대 및 컨소시엄 기관과의 ISNI 시스템 연계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기관이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분야별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ISNI KOREA, 2023).

- 공공: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학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방송작가협회
-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을 통해 발급된 ISNI를 확인한 결과 개인 직업 중 연구직, 교육직이 73%, 활동분야 중 기술과학, 사회과학 분야가 53%로 범용 식별자인 ISNI의 장점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과 KISTI를 통한 등록이 컨소시엄에서 88%를 차지하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와 같이 예술 분야 등록이 뒤를 이으며 세 기관을 합한 등록 비율이 약 11%로 일부 기관의 등록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다음 <그림 5>는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의 ISNI 등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ISNI KOREA, 2023).



<그림 5> ISNI-KOREA 컨소시엄의 ISNI 등록 현황

2. 선행연구

다음의 <표 1>은 ISNI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ISNI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목록

저자 (발행년도)	연구내용	시사점
이성숙, 박지영, 이혜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작성기관과 출판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 국가차원에서 ISNI와 전거레코드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ISNI를 활용한 전거 업무 지원
백지원, 이성숙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거 관련 규칙과 지침 개발 • 전거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 마련 • 전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및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 표준 식별자의 연계
Ann Van Camp, Sven Lieber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R(벨기에 왕립도서관)의 ISNI 구현 주요 이점 제시 	ISNI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 교환 촉진
국립중앙도서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연계 확충과 홍보 및 대상 계층 확대: 국내 민간 사업자 • 원천데이터 정비 / 메타데이터 확충 • 동명이인 확인과 해외 데이터의 연계 필요 	글로벌 상호운용성 보장 고품질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박진호, 광승진, 이승민, 오상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데이터 측면 기술요소 5개 및 링크드 데이터 관점 기술요소 8개 제시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링크드 데이터 스키마 제안
오상희, 광승진, 이승민, 박진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 인적정보 관리 방식이 각각 다르고,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역시 분야별로 인적정보 식별 및 저자물 연계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 	국내 학술, 예술, 문학, 음악 등 단체들의 ISNI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안 제시
국립중앙도서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Korea 컨소시엄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표준파일 구성 •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모형 구축 	저자식별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
Smith-Yoshimura, Karen et a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관 식별자 요구사항을 사례를 통해 제시 	조직 관리자, 펀더 및 출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요구사항 제시
Laura Dawson, Laurel L. Haak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와 ORCID 상호운용성 기술 구현 계획 기술 	ISNI와 ORCID의 상호운용성 기술 구현 가능성 제시

이성숙, 박지영, 이혜원(2023)은 ISNI를 활용하여 전거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국가 서지 작성 기관과 출판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ISNI와 전거레코드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백지원, 이성숙(2023)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전거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및 개선사항을 밝히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Ann Van Camp, Sven Lieber(2022)는 KBR(벨기에 왕립도서관)의 ISNI 구현 시 얻을 수 있는 전거 데이터 품질 향상, 원활한 데이터 교환 촉진, 납본 목록 작성 및 모니터링과 같은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등의 주요 이점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ISNI가 확산되면서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식별하고 연계하는 전거체

어의 프로세스와 활용방식이 확장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전거와 ISNI 연계 및 활용의 특징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전거와 ISNI의 연계와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박진호 외(2020)는 한국 인명, 단체명에 대한 등록 책임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중인 ISNI-KOREA 컨소시엄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메타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입수, 정제, 저장, 식별자 관리, 컨소시엄 메타데이터 관리로 총 5개, 링크드 데이터 관점에서 RDF 데이터 관리(저장소), RDF 데이터 발행, RDF 데이터 검색, RDF 데이터 조회, RDF 데이터 다운로드, 온톨로지 조회, 표준용어 조회, 매핑 정보 관리 총 8개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오상희 외(2019)는 국내 학술, 예술, 문학, 음악 등 단체들의 ISNI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 ISNI 발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13개 기관들을 선정하여 총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면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기관들의 인명정보관리 현황과 ISN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장애요인,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ISNI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18)의 「ISNI기반 저작자 표준파일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모형 연구」 보고서에서는 저자식별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 표준파일 협력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는 ISNI-KOREA 컨소시엄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표준파일 구성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모형 구축을 제시하였다.

Smith-Yoshimura et al.(2016)는 기관 식별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기존의 ISNI 데이터 모델을 확장하고 추가 값을 정의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내 조직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aura Dawson, Laurel L. Haak(2014)는 ORCID를 사용한 ISNI 상호 조회, 잠재적 데이터 공유, ISNI 연계 데이터 value chain과 ORCID 연결 등 ISNI와 ORCID의 상호운용성 기술 구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9편의 국내외 논문을 살펴본 결과, ISNI를 활용한 전거업무 지원에 대한 연구가 2편, 데이터 품질 및 공유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5편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ISNI 인식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ISNI 활성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ISNI-KOREA 컨소시엄의 결속력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ISNI-KOREA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SNI-KOREA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미참여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8월에서 10월까지 12회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해당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고 내용분석을 통해 ISNI-KOREA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데이터 수집 개요

인터뷰 준비단계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인터뷰 안내문을 작성하여 대상 기관에 이메일로 미리 전달하고 전화 연락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의 <표 2>는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¹⁾

<표 2>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인터뷰 대상 기관

컨소시엄 참여기관	컨소시엄 확대기관(출판계)	컨소시엄 확대기관(출판계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반산업협회(1)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3)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 • 한국방송작가협회(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3) • 한국연구재단(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유통진흥원(1) • 한국출판콘텐츠(1) • 한국출판유통산업진흥원(4) • 대한출판문화협회(3) • 한국출판인회의(3) • 교보문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예술기록원(2)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

인터뷰 대상 기관으로 현재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 14개 중 6개 그리고 컨소시엄 확대기관으로서 출판계는 출판유통진흥원을 포함한 6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출판계 외로서 아르코예술기록원 등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총 15개 기관 2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일정은 참여자들의 동의 아래 시간을 정해 놓고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간은 50분에서 90분 범위에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면접이 진행되면서 면담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보완하고, 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전사 및 메모작업을 거친 인터뷰 자료를 ISNI-KOREA 컨소시엄 관련 내용에 대해 세부 코딩 작업을 거쳐 관련한 의미를 도출하였다. 코딩은 일반적 질적 분석의 단계인 세그멘팅, 초기 코딩, 심층 코딩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ISNI-KOREA 참여와 관련한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난 문장에 줄을 긋고 번호를 부여하는 세그멘팅을 하였다. 다음으로, 세그멘팅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들, 의미들, 주제들에 코드 부여를 하는 초기 코딩을 거쳤다. 이때 면접 자료에 드러난 의미를 코드와 함께 목록으로 작성하는 템플릿

1) 기관명(수)는 인터뷰 대상 기관과 인터뷰 참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으로 초기 코딩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 코딩을 통해 ISNI-KOREA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 의미 있는 코드를 더욱 요약적으로 그리고 주제별로 묶어 의미를 찾았다. 이를 통해 질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주제의 생성에 도달하였다.

질적 연구의 결과 분석은 인물 사례별, 상황별, 주제별로 전개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중 질적 자료로부터 주제를 도출한 후, 주제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ISNI-KOREA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주제를 ISNI-KOREA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 어려움, 방법 제안, 기대효과로 군집화하였다.

2. 인터뷰 내용 분석(1)

다음의 <표 3>은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인터뷰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인터뷰 개요

연번	참여기관명	일시	참여 인원
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3년 8월 31일(목)	2
2	한국방송작가협회	2023년 9월 01일(금)	2
3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023년 9월 01일(금)	2
4	한국음반산업협회	2023년 8월 07일(월)	1

해당 인터뷰 기관의 선정은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참여도가 적거나 ISNI 발급이 전무 또는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음의 <표 4>는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여 최상위의 대 주제인 현황, 어려움, 방법 제안, 기대효과로 군집화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개요

연번	대주제	빈도 ²⁾	주요 내용
1	현황	25	- ISNI가 국제 표준으로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함
2	어려움	25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창작자 정보 무결성 담보 어려움 - 경영진 설득, 실무자 동기부여의 어려움
3	방법 제안	31	-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납본 신청 시스템 연동 - 민간 협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 경영진, 창작자, 실무진 대상 교육과 홍보
4	기대효과	15	- 창작자 정보 관리 용이 - 미분배 보상금 해결 효과 - 창작자 사후 저작권 및 공개 이용 관리

먼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관 내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ISNI 활성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작가간 계약서 작성 시 ISNI를 연계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마련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확대를 해야 하며 참여기관의 구성원 집단을 세분화하여 ISNI 인식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ISNI 활성화를 위해 창작자는 물론, 미래 잠재적 창작자에 해당하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의 인터뷰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창작정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 그리고 ISNI의 자발적 등록을 위한 창작자 대상 홍보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한국방송작가협회의 경우 방송 드라마 작가가 가입한 신탁 단체로서 창작자 개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창작자 정보 무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이 신청자의 ISNI 등록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매뉴얼이 갖추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 대상 ISNI의 자발적 등록을 위해서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등록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강조하면서 매우 다양한 창작자가 연계된 예술 장르로 ISNI에 시나리오 작가가 등록되어도 시나리오 작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창작자 정보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 주된 시사점은 ISNI 인식과 참여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간의 상호 호혜성 공동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등록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과 컨소시엄으로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관이 연계하여 ISNI 제도에 대한 미래 창작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면 ISNI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경우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ISNI 발급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ISNI 발급을 선도적으로 이끌기에는 기관 내부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현실과 국내 음악 플랫폼에서는 자체 창작자 아이디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ISNI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온라인 음원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DDEX(Digital Data Exchange)에서도 ISNI 도입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ISNI가 창작자 식별을 통해 저작권 관리 등 정산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ISNI에 대한 기관 내부의 저조한 인식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구성원을 집단 세분화하여 ISNI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ISNI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2) 빈도는 인터뷰 내용 군집화 시 언급된 총 수치를 나타냄

참여 기관과 확대 목표 기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 상호 호혜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저작권 신탁기관으로서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ISNI를 통한 창작자 식별을 할 수 있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창작자 사후 저작권 소멸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ISNI의 생몰년 정보가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음의 <표 5>는 ISNI-KOREA 참여기관 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한 것이다.

<표 5>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인터뷰 종합

인터뷰 시사점	비고
• ISN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	제도 보완
• 창작자 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창작자 정보 무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정책 추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서 작성 시 ISNI 연계 매뉴얼 마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제도와 시스템 개선
•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한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확대	정책 추진
• ISNI 인식과 참여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 및 확대 목표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상호 호혜성 공동사업 추진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 연계 공동사업 추진	정책 추진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구성원 집단 세분화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제도적 보완사항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제도적 보완사항
• 출판계, 창작자,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민관 협력 체제하에 다각도로 마련	제도적 보완사항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제도적 보완사항, 정책 추진 그리고 시스템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도는 ISNI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개발, 신탁기관의 창작자 계약서 작성 시 ISNI 연계할 수 있는 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컨소시엄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제도, 납본시 ISNI 신청 제도, 인식과 참여도 확대를 위한 ISNI 홍보 및 교육 제도 그리고 참여기관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작자 정보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참여기관 확대, 컨소시엄 기관과의 호혜성 공동사업 추진 그리고 신탁기관 또는 단체를 위한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연계 공동 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3. 인터뷰 내용 분석(2)

다음의 <표 6>은 ISNI-KOREA 컨소시엄 미-참여기관의 인터뷰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인터뷰 개요

연번	참여기관명	일시	참여 인원
1	교보문고	2023년 9월 15일(금)	2
2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년 8월 31일(목)	2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8월 9일(수)	4
4	한국출판인회의	2023년 8월 31일(목)	3
5	한국출판콘텐츠, 출판유통진흥원	2023년 8월 7일(월)	2
6	아르코예술기록원	2023년 9월 8일(금)	2
7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2023년 9월 8일(금)	2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10월 6일(금)	2

인터뷰 대상 기관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담당자와의 면담, 출판계의 참여 확보 그리고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컨소시엄 참여 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다음의 〈표 7〉은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 목표 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7〉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 목표 기관 인터뷰 내용 분석

연번	대주제	빈도	주요 내용
1	현황	44	- ISNI가 국제 표준으로 효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함
2	어려움	32	-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 사이 경계에 대한 법리 해석 - 예술인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민간 영역에서 혜택을 느끼고 참여할 만한 요소가 적음 - 추가 업무로 느껴짐 - ISNI 초창기 부여된 출판사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
3	방법 제안	62	-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납본 신청 시스템 연동 - 민간 연구소 등에는 ISNI 컨소시엄 가입에 따른 직접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협력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출판사의 계약서 작성 등 시점에 ISNI 관련 정보 수집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ISNI 코드를 필수 값으로 변경 - 해외 ISNI 사례 참고 - 출판계 연대 문화 운동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영진, 창작자, 실무진 대상 교육과 홍보
4	기대효과	6	- 창작자 정보 관리 용이 - 예술 활동 증명 절차 간소화 - 독립출판물 창작자 정보 관리 가능 - 미분배 보상금 해결 효과 - 창작자 사후 저작권 및 공개 이용 관리 - 저자 대상 판매 현황 보고 서비스 제공에 도움

위의 〈표 7〉은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 목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최상위의 대주제인 현황, 어려움, 방법 제안, 기대효과로 군집화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교보문고의 경우, ISNI 활용 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활용에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출판 유통 분야의 창작자 관리와 ISNI는 목적이 달라 호환 가능성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출판 유통의 속도와 ISNI 발급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창작자와의 계약 단계에서 ISNI 발급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출판 유통의 속도에 ISNI 발급 속도를 맞출 수 있다면 관련 정보를 출판 유통계에 홍보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ISNI 인식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해서 출판계 및 창작자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경우 납본 보상금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출판사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별도의 창작자 정보를 관리하거나 출판사와 창작자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창작자 정보를 국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국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특별 관리되고 있어서 ISNI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독립 출판의 경우 납본 대행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ISNI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출판사 및 창작자 대상 홍보, 교육으로 ISNI 효용성 및 혜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납본 보상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서 납본 시 ISNI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현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ISBN·ISSN·납본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발급, 신청 및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ISBN·ISSN 납본 시스템이 출판사를 통해 창작자와 연결되어 ISNI 발급이 용이하도록 모델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창작자 대상 ISNI 교육 및 홍보(북튜버 및 인플루언서에 홍보 위탁 등 방안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탁저작물 관리 신고 의무화, 출판사 대상 출판계 연대 문화운동 제안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ISNI 활용이 활성화될 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는 도서 납본 이전의 도서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국출판인회의의 경우, 단행본 출판사 중심의 출판 단체로서 약 500개 출판사의 회원사 권리 증진, 출판정책연구, 저작권 권리 확보, 출판유통 환경 개선, 전자출판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출판교육기관 SBI(서울북인스티튜트) 운영 등을 위하여 1998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경우 ISNI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토로하여 교육 및 홍보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창작자를 신예 창작자와 중견 이상 창작자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신예 창작자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중견 이상 창작자는 한국작가회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나타냈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창작자의 ISNI 발급 신청이 활성화된다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한 창작자 대상 판매현황보고 서비스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출판콘텐츠와 출판유통진흥원은 자체 식별자로 창작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판 유통사마다 창작자 파일 관리에 중복 인력이 투입되며 표준화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 시 빈약한 서지 메타데이터가 입력되어 ISNI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납본과 ISNI를 용이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현황보고 시스템 내에 ISNI 연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출판계에 속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ISNI 활성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유통사와 함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ISNI 교육 및 인지도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의 경우 한국의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및 서비스하는 곳으로 연극, 무용, 음악 및 미술 분야가 함께 ISNI-KOREA 컨소시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관에서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인명 DB를 ISNI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리 해석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ISNI 양식에 맞는 정보인지는 판단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DB 데이터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인명 DB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리 해석 가이드를 아르코예술기록원에 제공해야 한다. 원활한 ISNI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ISNI-KOREA 컨소시엄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르코예술기록원과 함께 창작자 대상 ISNI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예술 관련 민간 연구소에 ISNI-KOREA 컨소시엄 가입 혜택을 제시하고 공동사업 및 서비스 구현을 통해 예술 분야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방송실연자관리협회는 방송 실연자 권리 신장단체로서 국제 실연권집중관리단체연합인 SCAPR (Societies' Council for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Performers' Rights)에서 개발한 식별자를 사용하려니 회원 영문명이 없어서 고민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회원 영문명과 동명이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ISN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실연자가 ISNI 발급에 동의를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발급 신청을 하고, ISNI를 인명번호로 활용하여 실연자 DB에서 동명이인 관리를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탁저작물 관리 신고 시 ISNI 정보 작성이 의무화된다면 실연자의 ISNI 발급 동기가 더욱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17만명 이상 예술인의 정보를 관리하며 예술 창작 활동 증명 신청과 주기적 재신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ISNI 발급 및 활성화 측면에서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 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활동 증명 신청 및 재신청 과정에서 예술인(창작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ISNI 발급에 활용한다면 ISNI 발급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예술인의 ISNI 발급 동의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이 요구된다. ISNI 발급이 진행된다면 ISNI DB와 예술인 DB의 연계를 통해 최신창작정보의 상호간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예술 관련 정보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표 8>은 ISNI-KOREA 컨소시엄 미참여(참여확대)기관 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한 것이다.

<표 8>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인터뷰 종합

인터뷰 시사점	비고
• ISN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	제도 보완
• 창작자 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창작자 정보 무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정책 추진
• ISNI 발급 절차 및 속도 개선	시스템 개선
• 출판사의 창작자와 계약 단계 ISNI 발급 신청 절차 연계 업무 매뉴얼 개발	정책 추진 및 시스템 개발
• 독립 출판 창작자 대상 납본 교육과 ISNI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한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현황 보고 시스템의 ISNI 연계 방안 공동 마련	정책 추진 및 시스템 개발
• 인식과 참여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 및 확대 목표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상호 호혜성 공동사업 추진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 창작자의 국제적 홍보 프로그램 마련	정책 추진
• ISNI 컨소시엄 기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마련	정책 추진
• 예술 창작 활동 증명 시스템 연계 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 및 교육 지원	정책 추진 및 시스템 개발
• ISNI 가입 무료 지원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 등 중장기 정책 마련 및 홍보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ISNI-KOREA 컨소시엄 미참여(참여확대) 기관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제도적 보완사항, 정책 추진 그리고 시스템 개선 및 개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ISN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은 참여기관에서도 도출된 시사점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무결성 사업, 창작자 및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ISNI 가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 등은 정책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우 창작자와 계약 당시 ISNI 발급 및 연계할 수 있는 기능과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우선적으로 주문되어 진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현황보고시스템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창작활동증명 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4.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인터뷰 시사점 종합

아래의 <그림 6>은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인터뷰에서 다수의 기관이 언급한 주요 기관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인터뷰 모델을 시각화한 것이다. 주요 기관으로 꼽힌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시스템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지목되었다.



<그림 6>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인터뷰 시사점 모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서를 통해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창작자의 ISNI 발급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ISNI 발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또는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연계한 ISNI 홍보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다수의 기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저작권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위탁저작물 관리 신고를 받으며,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저작물 관리 신고 시 ISNI 정보 작성이 필수 항목이 된다면 창작자들에게 ISNI 발급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활용하여 창작자들에게 ISNI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출판계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납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해 유통사와 함께 ISNI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ISBN·ISSN 납본 시스템과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ISNI 정보와 납본 이전 도서정보)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저자대상 판매현황 보고서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통적으로 세 기관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 및 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인터뷰 모델이 그려졌다. 또한,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계를 위하여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ISNI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15개 기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 정책 추진 및 시스템 개선(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은 4장의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및 증장기 발전 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IV.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및 증장기 발전 방안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증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

다음의 <표 9>는 ISNI-KOREA 컨소시엄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관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종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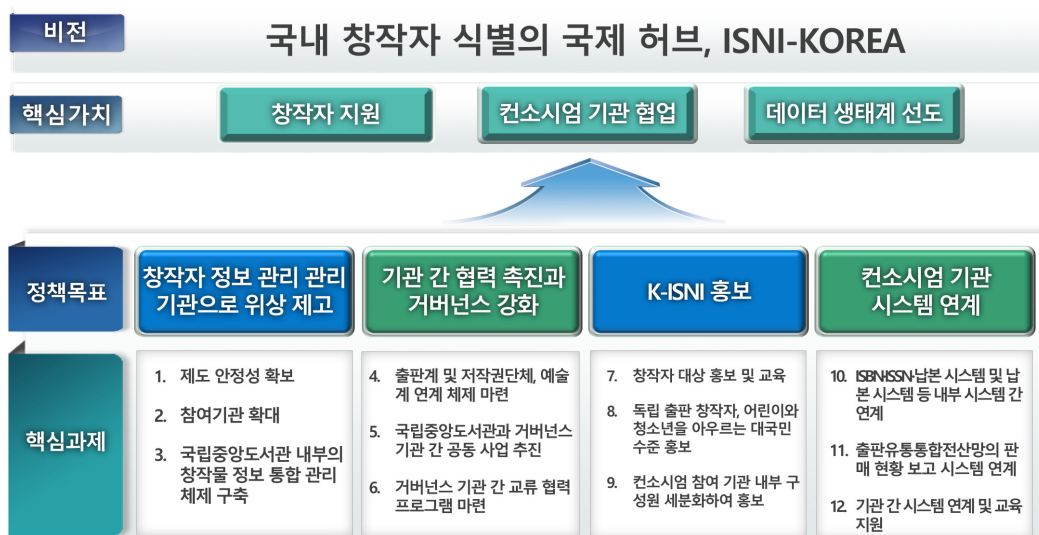
<표 9>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구분	정책적 시사점	구분	정책적 시사점
자체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KOREA 활성화 증장기 정책 마련으로 ISNI 가입 무상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제도 안정성 확보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확대 • ISN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 • ISNI 발급 절차 및 속도 개선 •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한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의 창작자와 계약 단계 ISNI 발급 신청 절차 연계 업무 매뉴얼 개발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서 작성 시 ISNI 연계 매뉴얼 마련 • 납본과 ISNI 연계 방안 마련 • 인식과 참여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 및 확대 목표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상호 호혜성 공동사업 추진 •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 연계 공동사업 추진 • 창작자 정보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창작자 정보 무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 ISNI 컨소시엄 기관의 국내외 ISNI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마련
홍보 및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계, 창작자,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민관 협력 체제 하에 다각도로 마련 • 독립 출판 창작자 대상 납본 교육과 ISNI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작자의 국제적 홍보 프로그램 마련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구성원 집단 세분화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시스템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현황 보고 시스템의 ISNI 연계 방안 공동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창작 활동 증명 시스템, 아르코 예술기록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 및 교육 지원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제도 정비,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 사업 추진 등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자 대상을 다양화 한 홍보 및 교육, 컨소시엄 참여 동기 부여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시스템과의 연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자체 제도 정비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에 대하여 참여 및 미참여 기관에서 나타나 있어 시급히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거버넌스 강화의 경우 납본 당시 ISNI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사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창작자의 계약서 작성시 ISNI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홍보 및 교육에서는 ISNI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출판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창구와 정기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ISSN·납본시스템과 ISNI와의 연계,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현황 보고 시스템의 ISNI 연계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창작 활동 증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ISNI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

본 절에서는 4장 1장을 통해 도출된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7>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 중장기 발전 방안 개요

위에서 제시한 중장기 발전 방안은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의 비전은 '국내 창작자 식별의 국제 허브, ISNI-KOREA' 로 제시하였으며 비전에 따른 핵심가치는 '창작자 지원', '컨소시엄 기관 협업'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 선도'로 구성하였다.

ISNI-KOREA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안은 4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창작자 정보 통합 관리 기관으로 위상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의 창작물 정보 통합관리 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하겠다. 둘째, 기관 간 협력 촉진과 거버넌스 강화이다. 이를 위해 출판계 및 저작권단체, 예술계와 연계 체제 마련이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거버넌스 기관 간 공동 사업 추진, 거버넌스 기관 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K-ISNI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 대상 홍보 및 교육, 독립 출판 창작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대국민 수준의 홍보, 컨소시엄 참여기관 내부 구성원을 세분화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컨소시엄 기관 시스템 연계를 목표로 이를 위해서 ISBN·ISSN·납본 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각 목표별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창작자 지원, 컨소시엄 기관 간 협업, 데이터 생태계 선도라는 핵심 가치를 지니고 국내 창작자 식별의 국제 허브로서 ISNI-KOREA가 비전을 갖고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SNI-KORE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서 제시된 ISNI-KOREA 활성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또한 중장기 발전 방안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현장 참여자의 목소리가 누락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ISNI 활성화를 위해 출판계와 참여 확대 기관의 의사를 반영한 연구라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미참여(확대) 기관 15곳을 방문하여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한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4가지 방향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 노력으로는 ISNI 관련 중장기 정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매뉴얼 개발, ISNI 발급 절차 및 속도 개선, ISBN·ISSN·납본시스템의 ISBN 신청과 연동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현재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확대 목표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거버넌스 강화로 확장성 있게 ISNI-KOREA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작자는 물론 잠재적 미래 창작자인 대국민 전체, 그리고 정보기술 변화와 사회 요구에 따라 다변화되는 창작의 범위만큼 다양한 창작자의 범위를 아울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기관 내부 구성원 역시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현황 보고 시스템의 ISNI 연계 방안 공동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창작 활동 증명 시스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정보자원 연계·융합 확대를 통한 ISNI-KOREA 컨소시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출판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지식 생태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략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ISNI 기반의 식별자 연계 및 융합 서비스 도출 그리고 콘텐츠 접근 제고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8). ISNI기반 저작자 표준파일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모형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 국립중앙도서관 (2023. 6. 30.). ISNI KOREA. 출처: <https://www.nl.go.kr/isni/>
- 박진호, 곽승진, 이승민, 오상희 (2020). ISNI-KOREA 컨소시엄의 저작권 권리 단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요소 도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79-3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79>
- 백지원, 이성숙 (2023). 국가전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121-14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1.121>
- 오상희, 곽승진, 이승민, 박진호 (2019). 국내 분야별 인명정보 관리를 위한 저자식별체계인 ISNI 활용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 연구방법 이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121-147.

<https://doi.org/10.16981/kliss.50.2.201906.121>

이성숙, 박지영, 이혜원 (2023). 국가전자와 ISNI 연계 및 활용 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457-483.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457>

ISNI International Agency (2023, July 1). ISNI Registration Agencies. Available:

<https://isni.org/page/isni-registration-agencies/>

Laura, D. & Laurel, L. H. (2014). Improving Discoverability with Unique Identifiers: ORCID, ISNI, and Implementation. Available:

<https://www.slideshare.net/ORCIDSlides/isni-orcid-nfais20140723final>

Smith-Yoshimura, Karen, Janifer Gatenby, Grace Agnew, Christopher Brown, Kate Byrne, Matt Carruthers, Peter Fletcher, Stephen Hearn, Xiaoli Li, Marina Muilwijk, Chew Chiat Naun, John Riemer, Roderick Sadler, Jing Wang, Glen Wiley, & Kayla Willey (2016). Addressing the Challenges with Organizational Identifiers and ISNI. Dublin, Ohio: OCLC Research.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publications/2016/oclcresearch-organizational-identifiers-and-isni-2016.pdf>.

Van Camp, A. & Lieber, S. (2022, July 28). ISNI, a top tool for quality enhancement, smooth data flows and efficient internal processes.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bitstream/123456789/2008/1/055-van-camp-en.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Jiwon & Lee, Sungsook (2023).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uthority data shar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121-14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1.121>

Lee, Sungsook, Park, Ziyong, & Lee, Hyewon (2023). A study on the interconnec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and ISNI: focusing on the case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457-483.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457>

Oh, Sanghee, Kwak, Seung-Jin, Lee, Seungmin, & Park, Jinho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SNI for the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having focused group

-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ISNI-Korea Consortium manag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121-147. <https://doi.org/10.16981/kliss.50.2.201906.121>
- Park, Jinho, Kwak, Seung-Jin, Lee, Seungmin, & Oh, Sanghee (2020). A study on derivation of technical elements for joint use of copyright rights group data by ISNI Korea consortiu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379-3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79>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Research on a National Cooperation System Model for Constructing ISNI-based Author Standard Files*. Seoul: National Bibliography Department,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 *A Study on Establishing an Intelligent Data Sharing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Seoul: National Bibliography Department, National Library of Korea.